

지혜와 결단력 있는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中始祖

朱源先生은 국운이 기울어진 1906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한후 청운의 꿈을 품고 현해탄을 건너 東京第一外國語學校를 마치고 1928년에는 저 유명한 大原(오하라) 社會經濟研究所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先生이 都市計劃이나 經濟學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이 연구소에서 都市經濟를 다루면서부터였다.

조국이 해방되자 1946년부터 10수년간 서울大工大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都市計劃을 강의한 것도 선생이었다. 1951년부터는 忠武公紀念事業會 理事와 간사장을 지내는등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선생은 1958년에 大韓國土計劃學會를 창설하고 초대회장에 피선되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都市計劃에 대해서도 거의 인식이 없던 시기인데 도시계획의 가치를 들고 나오니 일반 국민들은 고사하고 識者들까지도 「도대체 국토계획이란 뭘 하는거냐」는 것이었다.

1967년 선생은 建設部長官으로 발탁되었다. 就任하자마자 京釜高速道路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이다.

이 당시 고속도로건설은 朴大統領을 제외하고는 온 국민이 반대했다. 국회, 企業,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반대소리가 높았다. 이렇게 선생은 언제나 먼 앞을 내다보고 포석하는 지혜와 결단력의 소지자였다.

長官在任時 이런일이 있었다. 당신의 專攻인 都市計劃과 국토계획에 뜻을 퍼붙려니 막상 計劃要員이 태무한 상태였다. 선생은



朱源先生
(1906~1988)

생각다 못해 서울大總長에게 서울大大學院에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를 설치해서 계획요원을 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답은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사연인즉 응모학생도 얼마안될 非人氣學科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선생은 단념하지 않고 文敎部長官과 협의했다. 수지가 안맞는 學科일수록 國立大學에서 해야하지 않느냐고 우겨 결국 서울大行政大學院에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를 신설하게 되었다.

1974년 서울대학은 이 學科를 母體로 해서 環境大學院을 발족시키게 되었다. 이 環境大學院은 현재 수십명의 都市 및 地域計劃博士를 배출했고 이들은 國土開發研究院을 비롯한 전국 14개 대학에 설치된 都市計劃學科 敎授로 활약하고 있다.

선생은 1959년부터 지금 經濟企劃院과 建設部의 前身이라 할 수 있는 復興部産業開發委員會에서 委員長署理로 있으면서 經濟開發 3 個年計劃을 만들었다.

이 계획은 4·19직전에 확정되어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

나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경제계획이라해서 貿易이나 金融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水資源이나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 이른바 公共部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 계획은 5·16후 제1차경제개발 5 個年계획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생은 國土學會설립 이후만 해도 약 30년을 우리나라의 國土計劃과 都市計劃에 생애를 바쳐왔다. 가히 국토계획의 中始祖의 존재였으나 1984년에는 私財 1 億원을 내놓아 國土計劃學會에 「炫汀基金」을 설치했다.

이 基金은 매년 會員中 연구실적이 두드러진 사람을 골라 賞金을 주는데 쓰여지고 있다.

後學들을 마치 子息같이 사랑하는 선생은 晩年에는 입버릇처럼 「學會會館하나 못지어놓고 가게되어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었다.

선생의 근검절약은 유명하지만 유행을 모르고 지냈고 흔한 메모지 한장 아끼느라 답배값 뒷면에 메모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다.

나는 30여년간 선생의 지도를 받아왔지만 놀라운 일은 단 한번도 남의 험담이나 약점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적이 없다.

또한 선생은 늘 젊어질려면 보약을 먹지 말고 原稿를 쓰라고 말씀하였다. 80老軀에 타계하기 한 달전까지 原稿를 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후진들에게 못다한 일들을 다해달라는 것으로 느껴졌다.

金儀遠
(瞭園大學校 敎수)